

Deloitte.



## 높아지는 아태지역 환경의식, 미래 지속가능 성장의 발판

2023년 10월  
Deloitte Insights



## Table Of Contents

---

- I** 기후변화 행동을 시작한 아태 지역
- II** 극심한 기후위기로 급변하는 아태지역 시민들의 삶
- III** 기후행동이 강화되는 아태지역 규제환경
- IV** 소비자의 기후 행동은 기업의 가치 창출 기회
- V** 정부의 정책 환경 조성이 탄소중립 전환 촉진
- VI** 견고한 저탄소 경제 창출을 위한 협력

# 아태 지역 기후행동 인식 조사

아태지역의 기후행동 인식 조사를 통해 현재 아태지역 소비자들의 기후행동 인식수준 및 행동과 정부정책, 규제 환경이 변화되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가치 창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 조사 배경 및 목적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기후행동 필요성 증가

- ☑ 중국 양쯔강 유역 60년만에 최악의 가뭄 ('22년)
- ☑ 호주 북동부 최악의 홍수사태, 3만여 가구 침수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22년)
- ☑ 인도 해수면상승으로 8억명의 주거지 위협 ('21년 인도정부 발표)
- ☑ 뉴질랜드 100년만사이클론 및 아태지역 폭염 발생 (e.g. '22년 태국 54°C 상승)

조사 목적



기후변화/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증가

- ☑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발생 지속 시 아태지역의 경제 생산성과 성장성 약화
- ☑ 2070년까지 약 96조 달러 손실 전망 (자연재해 대응 및 복구에 투입)

## 아태 지역 기후행동 인식 조사 결과

정부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개인의 기후행동 참여가 경제적 가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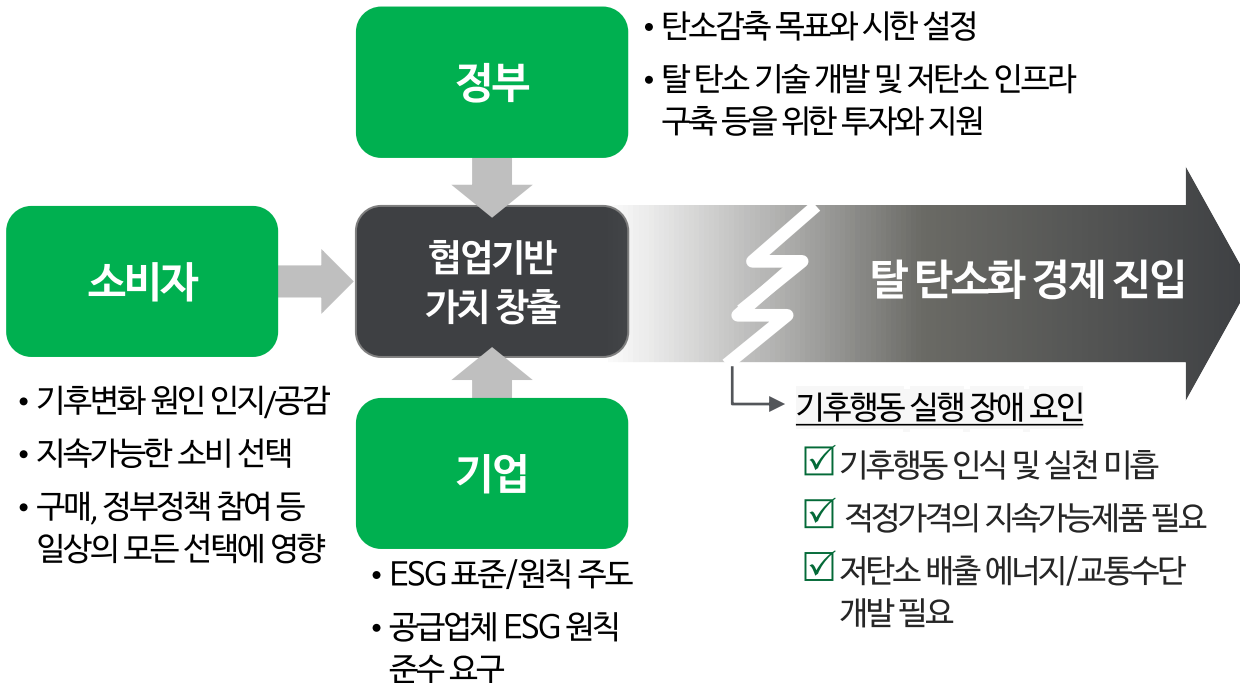
- 1 기후변화 행동을 시작한 아 · 태 지역
- 2 극심한 기후위기로 급변하는 아 · 태지역 시민들의 삶
- 3 기후행동이 강화되는 아태지역 규제환경
- 4 소비자의 기후 행동은 기업의 가치 창출 기회
- 5 정부의 정책 환경 조성이 탄소중립 전환 촉진

# 기후변화 행동을 시작한 아태 지역

아태지역 정부와 기업 및 소비자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기후행동 실행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탈 탄소 경제로 전환 시 2070년까지 약 47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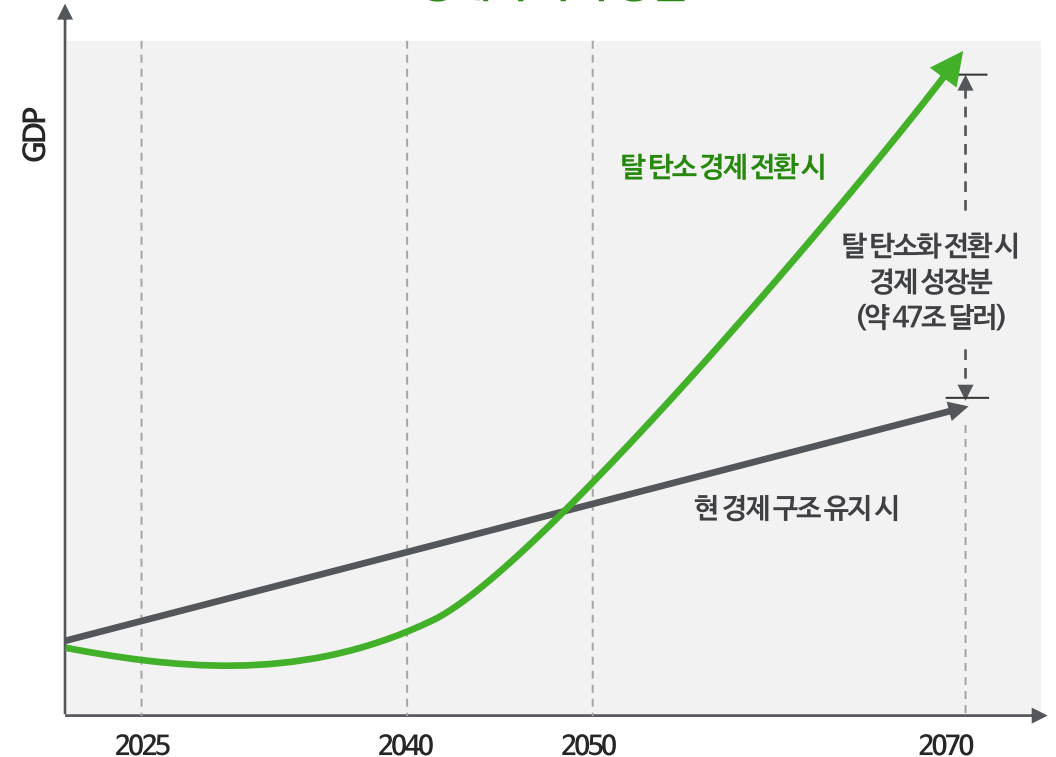
## 기후행동 실천

소비자, 정부 및 기업 간 상호 협업 기반으로 기후 행동 실행 시 경제적 가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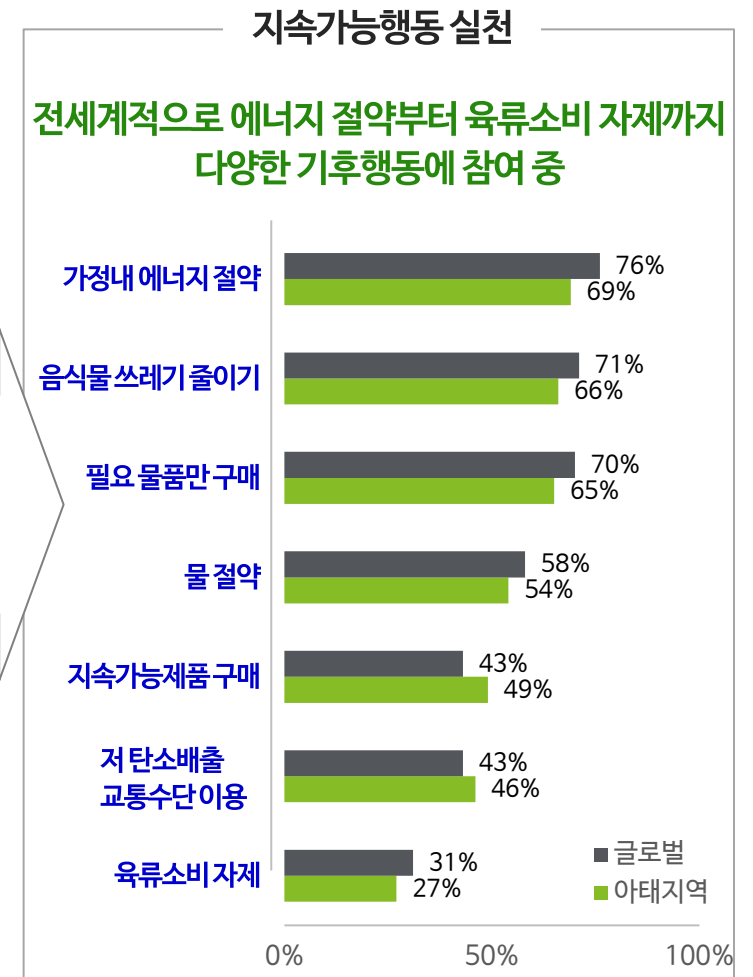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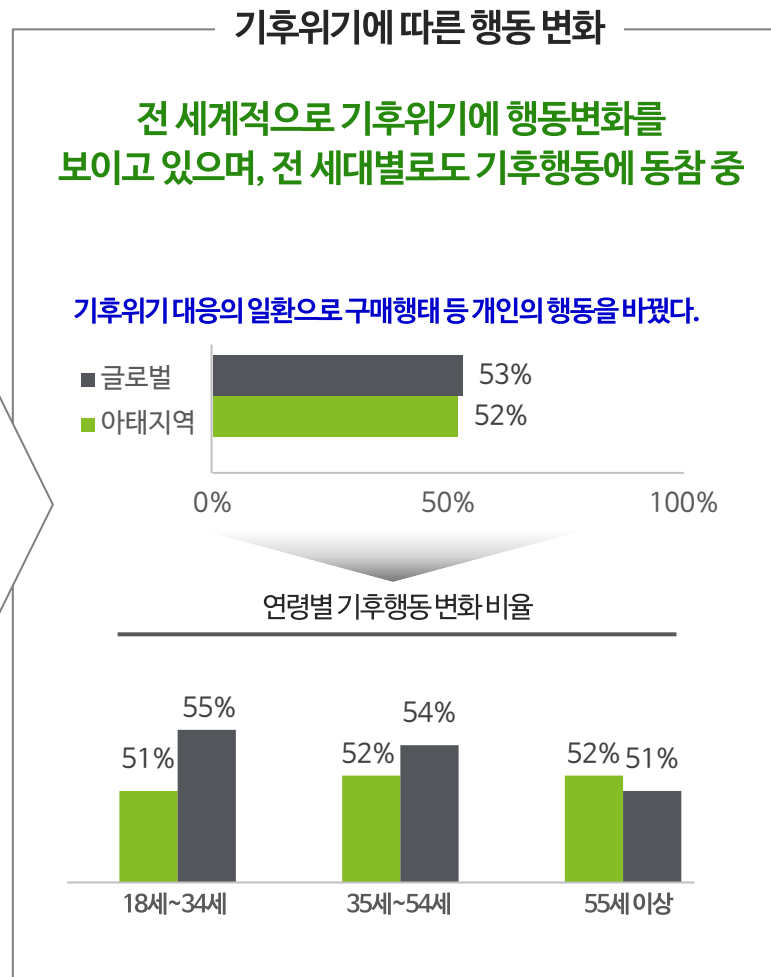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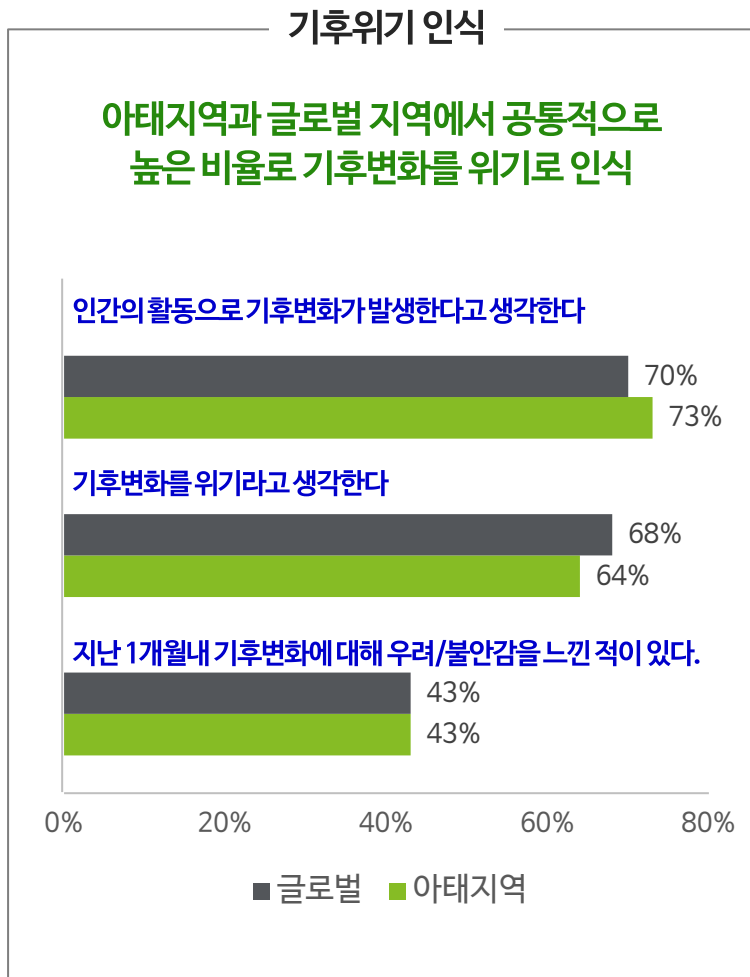
## 탈 탄소 경제로 전환에 따른 경제적 가치

탈 탄소 경제 전환 시 2070년 47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 창출



# 극심한 기후위기로 급변하는 아태지역 시민들의 삶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행동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내 에너지 절약부터, 지속가능제품 구매 및 육류소비 자제 등 전 세계와 전 세대가 공히 높은 비율로 실질적인 기후행동에 동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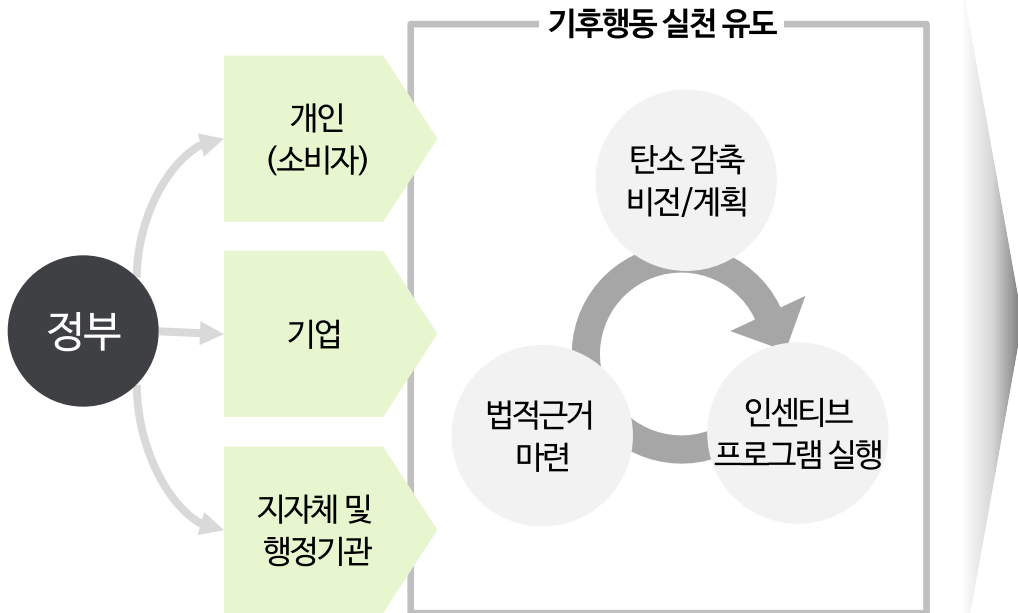


# 기후행동이 강화되는 아태지역 규제환경

아태 지역의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수립하고 이행 중

## 정책 규제 환경 조성

아태지역 정부는 기후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비전/계획, 법적근거와 인센티브 마련 등의 정책 규제 환경 조성



국가	탄소감축 비전/계획 및 법적 근거	주요 추진 프로그램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li> <li>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활용 방식에 기반한 부과금 징수</li> <li>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지원</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보호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수질·소음 공해와 고체 폐기물에 세금 부과</li> <li>환경오염물질 폐기에 대한 세율 인상</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전환(DX) 투자촉진세제 및 탄소중립 투자촉진법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기술 사용 촉진</li> <li>저 탄소 발생 제품 개발 지원</li> </ul>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발전위원회(NDC)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li> <li>쓰레기 폐기법(Waste Disposal Act)을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식·주·교통/오락·소비·교육 측면에서 저탄소 실천 캠페인 강화</li> <li>정부 부처 간 금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개정안 통과</li> <li>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탄소 집약도 비율 45% 까지 절감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히말라야 생태계의 보존 등 '녹색 인도' 만들기 에 중점</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액티브 탄소중립 표준' 발행</li> <li>탄소감축기금(ERF, Emissions Reduction Fund)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주정부 국제기후변화 협약 목표달성 세부 계획 수립</li> </ul>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배출감축 계획' (Emissions Reduction Plan)</li> <li>'국가적응계획' (National Adaptation Plan)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및 기후 변화 연구 프로그램 추진</li> </ul>

# 소비자의 기후 행동은 기업의 가치 창출 기회

아태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지속가능 제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이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은 기업의 운영방식 변화 압력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지속가능 사업 기회 제공

## 지속가능 제품 구매 의사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제품 구매 의사 보유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구매에 가장 큰 장애

지난 4주내 지속가능 제품을 구매한 적 있다.



더 비싼 가격에도 지속가능 제품을 구매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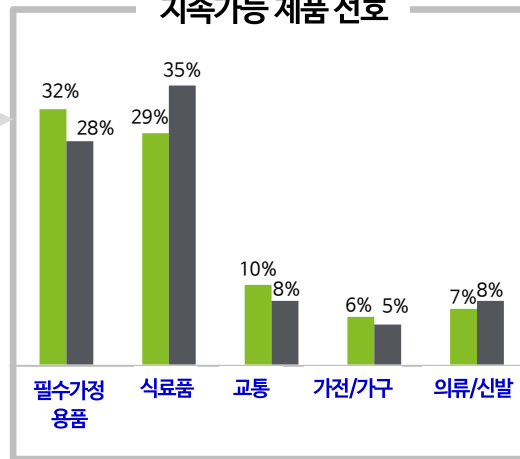
지난 1년간 지속가능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는 비싼 가격 때문이다.



■ 글로벌  
■ 아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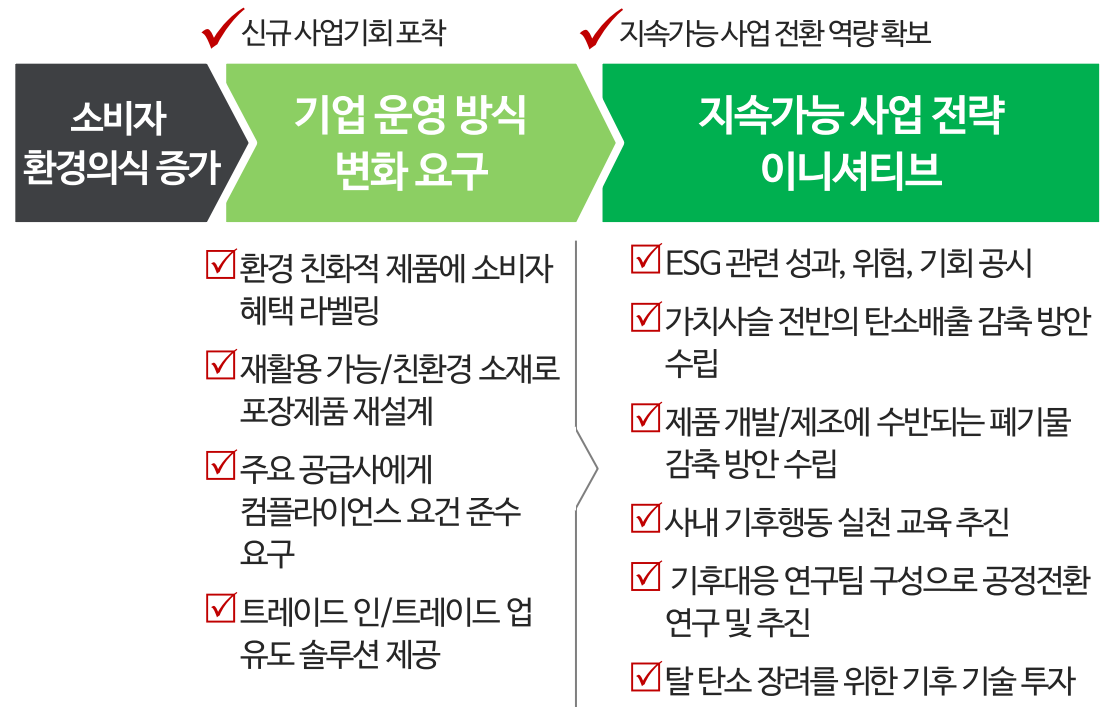
0% 20% 40% 60% 80% 100%

## 지속가능 제품 선호



## 기업의 지속가능 제품 전략 수립

증가하는 소비자 환경의식은 기업 운영방식의 변화를 요구 받지만 지속가능 사업 기회 확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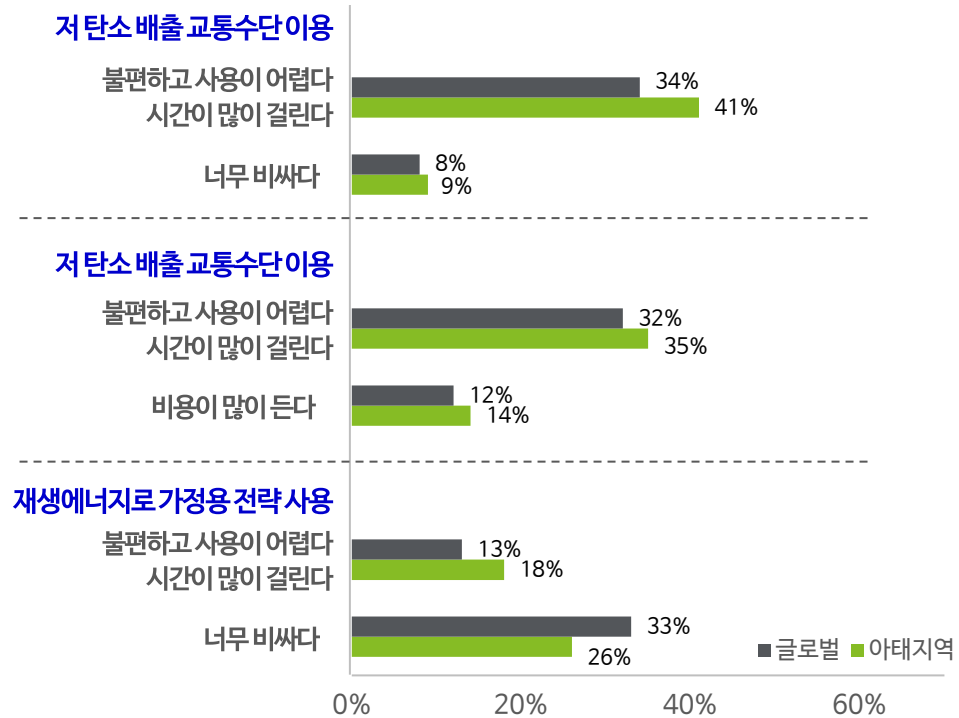


# 정부의 정책 환경 조성이 탄소중립 전환 촉진

소비자들의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용, 불편함 및 시간 증가 등 기후행동 실행의 주요한 장애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며, 개인과 기업이 기후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 조성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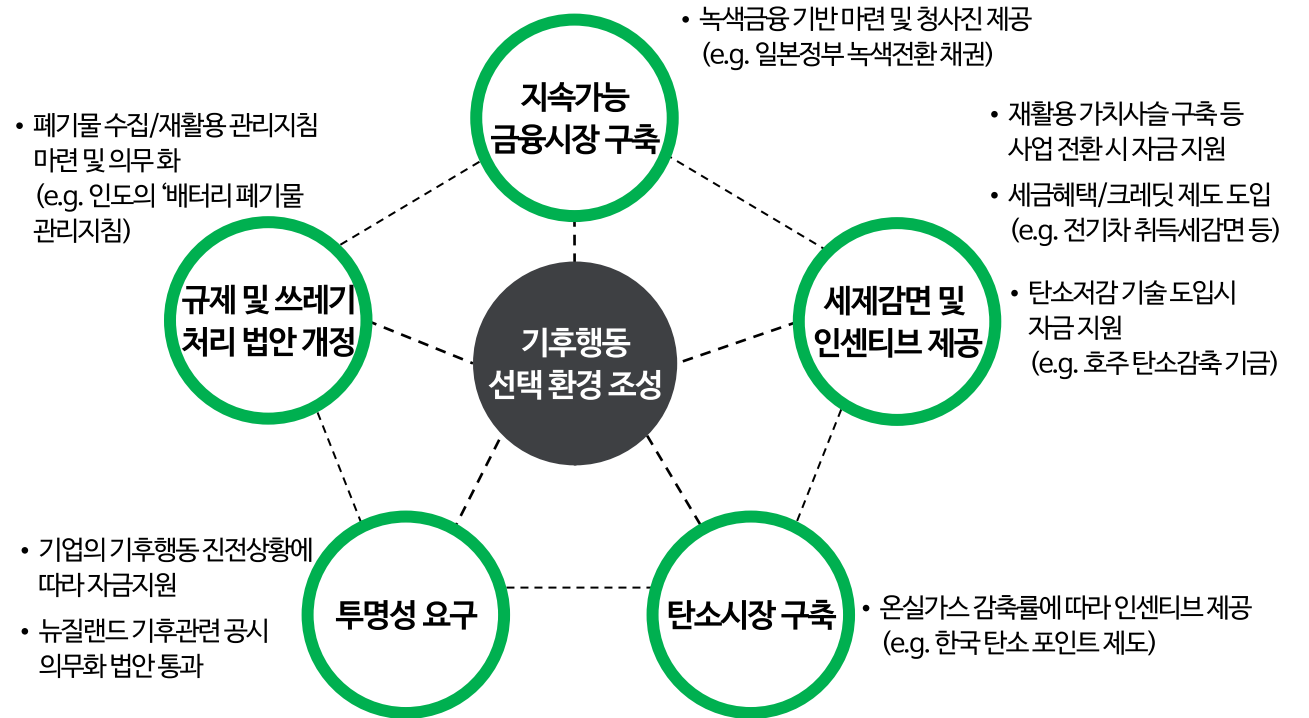
## 정부 정책 방향: 소비자 기후행동 실행의 장애물 해소

비용, 불편함 및 시간 증가 등 기후행동 실행의 주요한 장애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



##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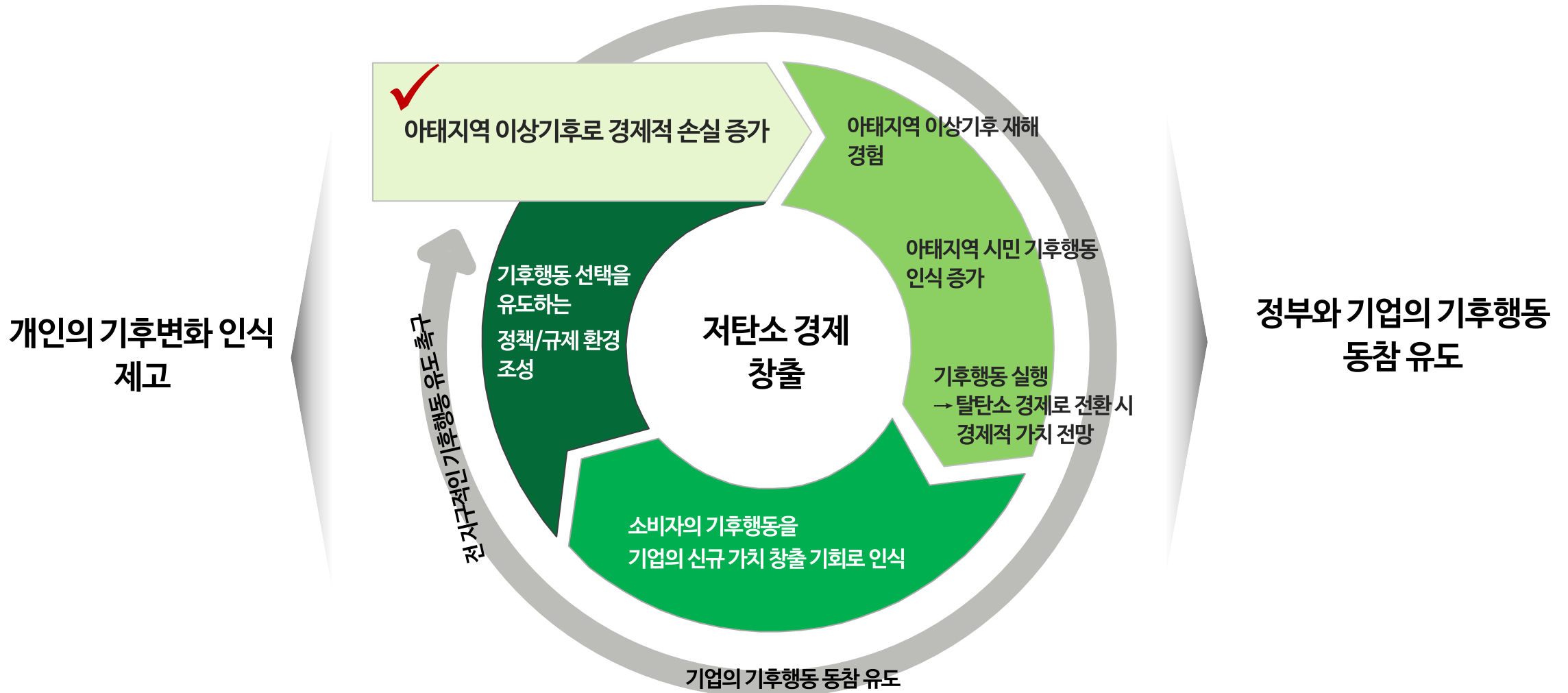
정부는 개인(소비자)과 기업들이 기후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 조성





## 견고한 저탄소 경제 창출을 위한 협력

아태지역 이상 기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시민들의 재해 경험 증가에 따라 기후행동 변화와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기후행동 동참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신규가치 창출과 탈 탄소 경제로의 전환 실행 필요



# Deloitte.

## Insights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 컨설팅  
성장전략 본부

손재호 Partner  
고객산업본부 본부장  
jaehoson@deloitte.com

정동섭 Partner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dongjeong@deloitte.com

김사현 Director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sahekim@deloitte.com

HOT LINE  
02) 6099-4651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